

Current Status and Role of Character Education in Religiously-Affiliated Universities

Kwonsoo Na¹, Jaekeun Youn^{2*}

^{1,2}Daej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nalyzes character education in religiously-affiliated universities ten years after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exploring harmonization of religious values with universal educational goals. It identifies structural dilemmas amid diversified student bodies and secularization, seeking solutions to conceptual ambiguity and educational formalization.

[Contents] First, the study examined character education concepts and pedagogical perspectives, identifying philosophical implications. Second, it analyzed operational status by religious tradition and major programs. Third, through critical examination of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it proposed a theoretical model harmonizing religious particularity with universality. Fourth, it explored social responsibilities in pluralistic socie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inkage.

[Conclusions] Religiously-affiliated universities possess clear philosophies based on religious values, yet face limitations serving diverse students. This stems from challenges distinguishing religious from character education and harmonizing religious freedom, neutrality, and founding ideologies. However, their value-based strengths can complement general universities' limitations. A model balancing religious particularity and educational universality will benefit university education and schools.

[Keywords] Character, Character education, General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ly-affiliated universities

* Corresponding author Jaekeun You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jin University)

E-mail : jkyoun@daeji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현황과 역할

나권수¹, 윤재근^{2*}

¹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강사, ²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10년의 시점에서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종교적 가치와 보편적 교육 목표 간의 조화 가능성을 탐색하여 대학 인성교육 개선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종립대학이 지닌 명확한 가치 체계가 다원화된 학생 구성과 세속화 경향 속에서 직면한 구조적 딜레마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인성 개념의 불명확성과 교육의 형식화라는 현행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첫째, 인성교육의 개념과 교육학적 관점을 고찰하고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정체성과 철학적 함의를 규명하였다. 둘째, 국내 종립대학의 인성교육 운영 현황을 종교별로 비교 분석하고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프로그램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셋째, 성과와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종교적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 방안 및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넷째, 다원화 사회에서 종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결론] 종립대학은 종교적 가치에 기반한 명확한 교육철학을 정립하고 있으나, 다종교·무종교 학생들에게 설득력 있는 인성교육을 제공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는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의 구분, 종교의 자유와 중립성 원칙 그리고 설립 이념의 조화라는 과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종립대학이 지닌 가치 기반 교육의 강점은 인성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일반대학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종교적 특수성과 교육적 보편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종립대학의 인성교육 모형은 대학교육 전반은 물론 초·중등 학교의 인성교육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인성, 인성교육, 교양교육, 종교교육, 종립대학

I. 왜 지금, 종립대학 인성교육인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인성교육은 1995년 5·31 교육개혁위원회가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제안하면서 본격화했으며(Son, 2016: 103-104), 그 연원은 1차 교육과정(1954~1963)까지 거슬러 올라간다(Ru, & Lee, 2024: 143).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와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지만,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이 수립된 이래 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은 일관되게 교육의 핵심 가치로 다루어 온 셈이다.

사회 전반에서도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 해체, 가치관 혼란, 개인주의 심화 등의 사회 현상은 도덕적 판단, 배려와 공감, 책임 의식의 함양이라는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가 단순한 지식의 전수가 아닌 인성 함양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주며,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사이버 괴롭힘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한 근본적 대응 방안으로 인성교육이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의 기관이자, 전인적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교육부는 제1차(2016~2020), 제2차(2021~2025)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인성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의 인성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9%가 ‘낮다’ 또는 ‘매우 낮다’로 응답했으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2021년 36.8%, 2022년 38.9%, 2023년 45.9%로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Kwon et al., 2023: 122; Han, 2025: 453). 이는 법 제정과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이 기대만큼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간 시행해 온 인성교육이 기대만큼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Kwon, 2025a: 69-71). 주요 쟁점으로는 인성 개념의 불명확성과 합의 부재, 교육 현장의 산발적 운영, 교과교육의 이원화 등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요컨대 근본적인 문제는 인성교육의 기반이 되어야 할 인성 개념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편적이고 비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수렴된다. 개념 정립의 부재는 단순한 용어 혼란을 넘어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즉, 학교의 상황이나 교사들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적 편차가 심화되고, 산발적이고 전시행정화된 인성교육이 난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성

교육은 대체로 범교과적으로 체계적이기보다는 교양교육에서 단일교과로 개설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영미 외(2022)는 현행 대학 인성교육에서 인성교육의 목적이나 목표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거나,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한다. 또한, 인성 덕목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부족하고, 평가 방법의 다양화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다변하는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의 대응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적시한다(Bak et al., 2022: 21-24). 이러한 문제들은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실질적인 내적 성장을 저해하고,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교육활동에 그칠 우려가 있다.

대학 인성교육의 이 같은 문제는 종립대학에서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종립대학은 종교적 가치에 기반한 명확한 인성 덕목과 교육철학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대학이 겪는 ‘인성 개념의 불명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한다. 종교의 교육적 가치는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고양하고 인격적 성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목적과 본질적으로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Na, & Youn, 2022: 90).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실상은 종교적 가치의 보편성 확보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정 종교의 교리에 기반한 인성 덕목을 종교적 신념이 다른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종교 중립성 원칙과 설립 이념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하는 종립대학 특유의 딜레마가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제약하고 있다. 즉, 명확한 가치 체계를 갖춘 종립대학조차 효과적인 인성교육 실현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종립사학이 고등교육에서 상당 부분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Na, & Youn, 2022: 83). 사립대학 중 상당수가 종립대학임을 고려할 때,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일부 대학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대학교육 전반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종립대학 인성교육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 선행된 종립대학 인성교육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특정 종교의 교리나 사상을 인성교육에 적용하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 종교적 수행이 인성 함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Park et al., 2016). 둘째,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로, 종교교육이 인성교육에 기여하는 방식(Lee, 2016; Yoo, 2018)과 종교 중립성 문제(Seong, 2015; Kim, & Ko, 2016)를 다루었다. 셋째, 종립대학의 인성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 연구로, 가톨릭대학(Lee, 2023), 불교종립대학(Cho, 2019), 개신교대학(Huh, 2016) 등 개별 종립대학의 사례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 연구는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보편적 특성과 차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기보다는 대체로 단일 종교 또는 단일 대학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종교 지형이 급변하는 현시점에서 종립대학이 어떻게 종교적 정체성과 보편적 인성교육을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 학령인구의 급감, 다문화·무종교 학생의 증가, 가치관의 다원화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의 종료를 앞두고 제3차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현시점은, 법제화 이후 10년간의 인성교육을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결절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의에서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종교적 특수성과 교육적 보편성의 조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사례를 통해 가치 기반 인성교육의 실천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인성 개념의 불명확성과 교육의 형식화라는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종립대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인성교육 전반과 초·중등 학교의 인성교육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종립대학의 교육 이념과 인성교육

모든 종교의 공통된 이념은 전인적 인간을 추구한다. 교리와 의례에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 지향점은 인간의 본질을 궁구하여 본래의 완전한 인간상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있다. 불교는 자비와 깨달음을 통한 해탈을, 유교는 인(仁)의 체득을 통한 군자의 완성을, 기독교는 사랑의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회복을 추구한다. 이러한 종교 전통이 핵심 가치로 제시하는 자비(慈悲), 충서(忠恕), 인애(隣愛) 등과 같은 덕목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 가치·덕목’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Seong, 2015: 293; Lee, 2016: 152; Yoo, 2018: 77). 즉, ‘나’에서 공동체와의 조화로 나아가는 인성교육의 지향은, 종교가 오랜 세월 강조해 온 윤리적 가치의 현대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인성교육과 종교교육의 본질적 친화성에 착안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모델로 ‘종교에 관한 교육(teaching about religion)’에 주목하기도 한다(Youn, 2007: 246). 이를테면, 종교의 교육적 가치는 인간의 도덕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인성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도덕교육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Ko, 2012: 331-332). 더욱이 종교가 인간 존재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하는 ‘궁극적 변화에의 수단(means of ultimate transformation)’이라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도록 견인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종교와 인성교육은 인간 완성이라는 공통된 지향점을 공유하며, 타자 지향적 윤리 실천과 지속적 자기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종교가 수천 년간 축적해 온 인간 이해와 도덕적 통찰은 현대 인성교육에 풍부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양자의 대화는 보다 깊이가 있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종립대학의 건학이념에는 그 대학을 설립한 개별 종교전통의 종교적 정체성과 교육적 보편성이 복합적으로 담겨있다. 종교적 차원에서는 각 종교의 신앙적 가치와 이념을 강조하며, 교

<표 1> 종립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

<Table 1> Founding Ideology and Educational Purpose of Religiously-Affiliated Universities

대학명	설립/교육/건학이념	교육목적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 정신에 기초를 둔 지식교육 서울여자대학교는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독교 정신에 기초를 둔 지식교육, 도의교육 및 기술교육을 균형 있게 실시함으로써 …… 인류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지·덕·술을 갖춘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와 고도의 산업기술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덕·술을 갖춘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랑과 봉사를 통한 진선미의 인간세계 구현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창조주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의 뜻을 알고 사랑하며,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정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조화의 세계를 이루고 인간의 참된 행복 즉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	천륜과 인도를 아는 지성인 양성 사회에 봉사하는 전문인 양성 인류구원에 헌신하는 진리의 증거자 배출
성균관대학교	修己治人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자기완성과 인류평화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修己治人의 儒教精神을 건학이념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인간이 타고난 天賦의 德目を 계발해서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움에 기본을 둔 올바른 價值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 궁극적으로는 전인류가 함께 지향하고 있는 理想社會 建設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동국대학교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건학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대진대학교	해원상생(解冤相生)과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대순진리회 취지에 따라 성실·경건·신념의 정신으로 학문을 연마하고 대인(大仁)·대의(大義)를 실천하여 인류와 세계를 잘되게 하는 상생의 주역 양성을 대진대학교의 건학정신으로 한다.	성실·경건·신념의 정신으로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원광대학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교정신에 바탕하여 과학과 도학을 겸비한 전인교육으로 새 문명사회 건설의 주역 양성을 건학의 기본정신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원불교 정신에 바탕하여 국가와 인류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을 연구·교수하고 덕성을 함양하여 도의를 실천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선문대학교	애천·애인·애국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참인격을 도야하고,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여 국가발전과 인류평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 종립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 인성교육 시행 현황은 각 대학의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함.

육적 차원에서는 이를 전인교육, 인격 형성, 공동체 및 사회적 책임과 같은 보편적 교육 이념 및 목적으로 구체화한다. 본 연구는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다양한 양상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종교 전통인 유교·불교·개신교·가톨릭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 이후 형성된 신종교인 원불교·대순진리회·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이 설립한 대학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각 종단을 대표하는 대학 중에서도 건학이념에 기반한 인성교육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대학을 선정하였다. <표 1>은 이들 종립대학의 건학이념에 나타난 종교적·교육적 이념 구조와 그것이 교육목적으로 구체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건학이념이 인성교육에 제공하는 교육철학적 기반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 이해이다. 각 종교는 인간이 도덕적 완성에 이를 수 있는 내재적 근거를 규정한다. 유교의 천성(天性), 불교의 불성(佛性), 기독교의 영성(靈性)이 그것이다 (Lee, 2016: 152). 이러한 본성 이해는 인간이 본래 선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그것을 회복하거나 실현할 수 있다는 인성교육의 전제와 일치한다. 유교에서 인간의 마음은 착하다는 성선적 본질을 규정한 것, 불교에서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 기독교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본질적 선함과 고귀함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다.

둘째, 전인적 인간상에 대한 명확한 제시이다. 종립대학의 건학이념은 추상적인 덕목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종교 전통의 전인적 인간상을 정확하게 설정한다. 대진대학교는 건학정신인 해원상생을 바탕으로 “성실·건전·신념의 정신으로 학문을 연마하고 대인·대의를 실천하여 인류와 세계를 잘되게 하는 상생의 주역”이라는 인재상을 표명한다. 원광대학교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교정신에 따라 “도의를 실천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교육목적으로 명시한다. 선문대학교 역시 건학이념의 근본 토대인 ‘애천·애인·애국’을 바탕으로 참인격을 도야하고, 국가발전과 인류평화에 이바지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종립대학의 건학이념은 인성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을 피상적 담론이 아닌 실현 가능한 덕목과 삶의 방식으로 구현한다.

셋째, 실천적 내면화에 대한 교육방법 체계이다. 종교 전통은 윤리적 가치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과 체득을 통해 내면화하는 구체적 방법을 마련한다. 성균관대학교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건학이념 아래 인의예지의 교시를 체화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동국대학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여 지혜와 자비를 일상에서 구현하도록 돕는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이론 교육과 현장 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하며, 서울여자대학교는 도의교육을 통해 ‘지·덕·술’이 균형을 이룬 전인 양성을 제창한다. 이러한 교육방법 체계는 지식 전달 중심의 일반 인문교육이 실현하기 어려운 종교교육의 독자적 특성이다. 반복적 체험과 성찰을 통한 내면화는 곧 현대 인성교육이 직면한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메우는 실질적 해법을 제공한다.

Ⅲ.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현실 진단

국내 종립대학의 인성교육은 각 종교적 전통과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불교계 대학은 자비와 지혜, 유교계 대학은 수행과 성찰을 강조하고 개신교계 대학은 사랑과 봉사, 천주교계 대학은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 또한, 대진대학교, 선문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은 기성종교와 차별되는 독창적 교리로 건학이념에 입각한 인성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토대로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종교적 특수성과 보편적 가치의 조화라는 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기독교계 대학인 서울여자대학교의 바롬인성교육은 1961년 개교 이래 60년 이상 지속된 생활 공동체 기반 인성교육으로, ‘경쟁이 아닌 화합’, ‘폭넓은 지식과 바른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2014년 대학 최초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수상, 2016년부터 교육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속 선정, 2023년 ‘바롬종합설계프로젝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선도적 인성교육 모델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꿈(CUM) 인성교육은 ‘함께’라는 의미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톨릭 사회교리 실천원리(공동성, 보조성, 연대성)에 기반한 가톨릭적 인성교육과 교과 및 비교과를 통한 이론·체험·실천이 함께하는 통합적 인성교육을 운영한다.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 학년에 걸친 학습주기별 인성교육을 설정하여 인성, 창의성, 공동체성을 지닌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추구한다.

유교전통을 표방한 성균관대학교는 2013년 성균인성교육센터 설립 이후 ‘성균논어’와 ‘성균인성수양’ 등을 개발하여 전통적 인성과 시대적 요구를 조화시키고 있다.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한 ‘인성함양 PPT공모전’, ‘인성여행·인성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신·가족·지역·세계로 확대되는 관계 중심의 인성교육을 추구한다. 특히, 인의예지와 수기치인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흥인(興仁)’, ‘돈의(敦義)’, ‘숭례(崇禮)’, ‘홍지(弘智)’의 4대 인성함양실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유교적 가치의 현대적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는 다르마칼리지를 중심으로 ‘자아와 명상 1·2’, ‘불교와 인간’ 등 동국인성 공통교양과정을 운영하여 지혜와 자비의 정신에 기반한 전인적 인성 함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참사랑사회공헌센터의 사회봉사교과목 운영을 통해 대학의 지식을 나누고 실천하며, 봉사활동 경험으로 자비나눔을 체험하도록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나눔과 배려의 실천을 통해 공생의 의미를 체득하고, 사회공헌의 책무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함께하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따뜻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참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대진대학교는 대순진리회가 설립한 종립대학으로, 올바른 인성함양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역량으로 인성역량과 소통역량을 제시한다. 인성역량은 “자아성찰을 기반으로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태도를 가지고 상생을 이루는 역량”으로 시민의식, 봉사정신, 책임감, 배려·윤리·도덕을 포함하며, 소통역량은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역량'으로 협업, 대인관계, 경청 등을 포함한다. 해당 역량의 체득을 위해 교양 교과를 개설하고, 동시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 스스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원불교가 설립한 원광대학교는 마음공부를 인성교육의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1999년 도덕교육원을 설립하고 '도의실천 덕성교육'으로 인성과 지혜를 겸비하며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2000년부터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덕성훈련 기본과정'을 시행하고, 도덕적 실천 덕목을 실제 수행한 학생에게는 '도의실천인증제'와 '사회공헌실천인증제'를 도입해 그 성과를 인증함으로써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한 통합적 인성육성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대학교는 '애천·애인·애국'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참인격 도야와 국가발전 및 인류평화 기여를 교육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공동체 인성 영역'을 설정하고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인성교육을 체계화하였다. '현대문화와 통일사상(I/II)'은 건학이념을 학습하고 '글로벌 서번트 리더'라는 인재상을 구현하도록 안내한다. '인성채플'은 삶의 근본적 의미와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깨달아서 개개인의 고유한 소명을 찾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글로벌 사회봉사'를 통해 30시간의 사회봉사 현장실습을 제도화하여 공동체 인성과 창의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여자대학교는 '바름인성교육', 대구가톨릭대학교는 'CUM 인성교육', 동국대학교는 '참사람인성교육', 원광대학교는 '도의실천' 등 각자의 종교적 전통에 기반한 특성화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건학이념을 인성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실천적 기반을 마련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종교의 자유, 교육의 효과, 개념의 정합성 등 다양한 층위의 쟁점을 야기한다.

첫째, 종교의 자유와 건학이념 간 구조적 긴장이다. 종립대학은 종교적 정체성 유지와 다양한 구성원 간의 요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한다. 졸업을 위하여 필수화된 종교과목의 이수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바, 이는 인성교육의 정당성 자체를 약화시킨다.

둘째, 교과와 비교과 간 불균형이다. 박영미 외(2022)의 조사에서 교과 운영 대학(54.9%)에 비해 비교과 운영 대학(35.3%)이 현저히 적고,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부설기관이 있어도 실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Bak et al., 2022: 16). 인성교육이 실천과 체험을 통해 내면화되어야 한다는 원리에 비추어볼 때, 이론 중심으로 편성된 교과 운영은 근본적 한계이다.

셋째, 전임교원의 교양교육 참여율 저조 문제이다. 조기룡(2019)이 지적했듯이, 전국 65개 대학 조사에서 전임교수가 교양교육 80% 이상을 담당하는 대학은 10.8%에 불과하며, 20% 미만인 대학도 7.7%에 달한다(Cho, 2019: 327-329). 시간강사 중심의 인성교육은 전문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낸다.

넷째, 효과성 검증의 방법론적 취약성이다. 박세훈 외(2016), 정진완(2012) 등의 연구에서 분석

한 바와 같이 통제집단 미설정, 장기 추적 연구 부재, 객관적 평가 기준 미확립 등으로 인해 인성교육의 실제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 더욱이 1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200~250명의 대규모 집단 운영도 교육 효과의 창출과 객관적 평가를 저해한다(Park et al., 2016: 42; Jung, 2012: 91).

다섯째, 인성교육의 개념 및 경계의 불명확성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시한 8개 핵심 덕목과 역량 기반 접근 간 관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덕목 중심 접근과 역량 중심 접근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Yoo, 2018: 64-68). 종립대학은 여기에 종교적 가치라는 또 다른 요소가 추가되어 개념적 혼란이 가중된다. 그 결과 종교교육인가, 인성교육인가의 정체성 논란이 지속된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인증의 실효성 논란이다. 인성교육인증제, 도의실천인증제 등이 실제로 학생의 인성 변화를 가져오는가 아니면 단순히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인성을 인증 가능한 자격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도구화될 소지가 있으며, 사회구조적 문제를 학생 개인의 도덕적 책임으로 전가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Na, & Youn, 2015: 76-77).

이러한 한계와 쟁점들은 종립대학의 인성교육이 단순히 프로그램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개념적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AI가 교육현장의 중심 화두이다. 인성교육 또한 시대적 요구와 현장 간의 괴리라는 새로운 쟁점이 부상한다. 유경숙·이주희(2024)가 주목했듯이, 전통적 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으로는 AI 윤리, 디지털 리터러시, 온라인 인간관계 등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Ru, & Lee: 2024, 159). 무엇보다 대학교육이 취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교양교육과 인성교육이 약화되고 있다. 종립대학이라도 취업을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는 인성교육의 부실화로 이어진다. 4장에서는 이러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V. 지속가능한 인성교육을 위한 제언

1. 종교적 특수성과 보편적 가치의 조화

종립대학의 인성교육이 직면한 근본적 과제는 종교적 정체성과 보편적 교육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종립대학들은 건학이념에 기반한 고유한 가치를, 교육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하지만, 동시에 다원화된 학생 구성과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긴장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인성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와 통합이 요구된다.

종립대학에서 실행되는 인성교육의 지속가능성은 무엇보다 종교적 가르침 속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하는 과제에 달려 있다(Kim, & Ko, 2016: 196). 기독교의 사관

과 섬김, 불교의 자비와 깨달음, 유교의 인의예지, 원불교의 정신개벽,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등은 각 종교의 이념적 표현이지만 그 본질에는 타자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경외, 공동체 책임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담겨있다. 이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시한 핵심 가치 덕목인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과 본질적으로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종립대학은 자신의 종교적 전통을 ‘특수한 것’으로 고수하기보다는, 이를 현대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은 타자 존중과 공동체 섬김 같은 보편적 가치로 확장할 수 있으며 ‘불성의 현전화’는 인간 존엄성의 자각, 자기완성의 주체성이라는 현대적 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다(Cho, 2019: 335).

이러한 종교적 언어의 현재화 작업은 학생 구성원의 다원화 속에서 종립대학이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과제와 직결된다. 종교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인해 종립대학 내 해당 신자는 물론 종교를 가진 학생의 비율 자체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구성 분포 실태에서 특정 종교 중심의 인성교육은 형식적 이수에 그치거나 학생들의 거부감을 초래할 여지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종립대학이 자신의 정체성을 폐기해야 할 문제 또한 아니다. 오히려 다원성을 전제로 한 정체성의 재정립이 탈종교시대에 더욱 유효하다. 안신(2020)은 종립대학의 사례를 통해 ‘배타주의와 포괄주의를 넘어선 다원적 다원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Ahn, 2020: 236). 이는 자신의 종교 전통을 중심에 두되, 다른 종교와 세계관을 존중하고 대화하는 열린 태도를 의미한다. 종립대학은 학생들에게 특정 교의를 주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전통이 제시하는 인간관과 세계관을 하나의 관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인성적 토대를 성찰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앙교육’과 ‘종교교육’의 인문학적 융합을 통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의 설계와 교육내용의 창출이 필요하다. 윤재근(200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신앙의 내면화를 목표로 하는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과 종교 현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추구하는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Youn, 2007: 247). 전자는 종립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토대가 되며, 후자는 다원화된 학습자들이 자신의 신념과 무관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두 층위의 교육이 조화하려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성찰할 수 있는 열린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선영(2015)은 인성교육이 단지 덕목이나 역량의 나열이 아닌 학생 자신의 삶을 조명하고 성찰하는 과정이어야 함을 강조한다(Moon, 2015: 61). 종립대학은 이러한 성찰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어 독특한 강점을 지닌다. 종립대학의 인성교육은 단순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넘어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와 같은 근본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대학과 차별화되는 실존적·형이상학적 차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조기룡(2019)이 제안한 일반대학과 차별화된 ‘깨달음의 교육’, 허도화(2016)가 강조한 ‘복음적 인성교육’은 모두 강요나 주입이 아닌 자발적 참여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다(Cho, 2019: 335; Huh, 2016: 249-250). 즉, 종교적 전통이

제시하는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을 열린 질문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성찰하도록 유도하는 교육방법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교과-비교과의 통합 모델 개발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과와 비교과의 유기적 설계가 필연적이다. 현재 다수의 종립대학은 인성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한편, 봉사·실천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 또는 비교과 어느 한쪽에 편중되거나, 이론 학습과 실천 활동이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되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교과에서 학습한 가치와 덕목이 실제 삶의 맥락에서 내면화되지 못하고, 비교과 활동 역시 이론적 성찰 없이 형식적 참여에 머무른다.

이러한 이원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과를 통한 개념적 이해와 비교과를 통한 체험적 실천이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통합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 백현기·박혜신(2024)이 제안한 바와 같이, 도덕적 판단력, 공감 능력, 사회적 책임 의식, 갈등 해결 능력 등 핵심 인성 역량과 하위 요소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Back, & Park, 2024: 47). 인성 역량은 다층적 구조를 지니며 점진적 발달 과정을 거치므로 단일 과목 또는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다루기 어렵다. 이에 종립대학은 기초-심화-적용의 단계적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기초 단계에서는 해당 종교의 인간관과 세계관, 핵심 가치를 소개하고, 심화 단계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윤리적 딜레마나 사회문제와 연결하여 사고하도록 하며, 적용 단계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종교적 가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인성교육은 이러한 구조화의 한 사례이다. 단순히 논어를 읽는 것을 넘어 성현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배우고, 고전의 이치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1학년 기초 과목, 2~3학년 심화 과목, 4학년 캡스톤 과목 등의 단계적 교육과정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 체계를 토대로 비교과 프로그램은 교과에서 학습한 가치를 실천하고 체득하는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현재 많은 종립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교과와 분리되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일회성 특강, 봉사활동 등 단편적인 경우가 많다(Bak et al., 2022: 16). 비교과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교과 내용과의 명확한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예컨대 종교 윤리를 다루는 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이 경험을 다시 교과의 성찰 과제로 연결하는 식이다. 둘째,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과 심화 가능성을 갖춘 프로그램 설계가 요청된다. 서울여자대학교의 ‘바름인성심화과정’, 대구가톨릭대학교의 ‘학습주기별 인성교육’은 학생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모델이다. 셋째, 비교과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현재 종립대학의 비교과는 주로 봉

사활동에 편중되어 있다. 인성교육의 다면성을 고려할 때 자기성찰, 공동체 활동, 문화예술 체험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조선대학교의 ‘개인별 성찰일지’, 충남대학교의 ‘CNU 독서인성캠프’, 성균관대학교의 ‘인성여행 인성캠프’ 등은 체험과 성찰을 결합한 사례에 해당한다.

교과-비교과의 통합은 양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교육 생태계를 형성할 때 가능하다. 강경리(2024)가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점의 융복합 교육과정은 이러한 통합 모델의 틀을 제공한다(Kang, 2024: 16). 즉, 교과에서는 지식과 이해를, 비교과에서는 태도와 실천을 중심으로 하되, 양자가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학생의 인성이 점진적으로 성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통합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주제 중심 통합 모델’이다. 공통된 인성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와 비교과를 함께 설계한다. 예컨대 ‘생명존중’이라는 주제로 교과에서는 불교의 자비 사상을 학습하고, 비교과에서는 환경보호 활동, 동물보호 캠페인 등에 참여하며, 다시 교과의 성찰 과제로 경험을 내면화하는 순환 구조를 만든다. 둘째, ‘프로젝트 기반 통합 모델’이다.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되, 교과에서는 종교적·윤리적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학습하고, 비교과에서는 실제 현장 활동을 수행한다. 이는 이론과 실천의 순환적 연계를 강화한다. 셋째, ‘역량 기반 통합 모델’이다. 인성역량을 세부 요소로 분해하고, 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와 비교과를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요컨대 ‘공감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교과에서 타자 이해에 관한 종교적 가르침을 학습하고, 비교과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세 모델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결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3. 효과성 검증 체계의 구축

제도적 개선의 마지막 요소는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교육과정 개선에 환류하는 체계의 구축이다. 출석률, 이수율과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는 인성교육의 본질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수의 종립대학은 인성교육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과정 개선도 객관적 분석보다는 경험적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인성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효과성 평가도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손승남(2024)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이 고루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Son, 2024: 30), 권선향(2025)은 인성교육 평가 시 인성의 보편성과 고유성을 구분한 체계적 평가 지표 마련이 필요함을 밝힌 바 있다(Kwon, 2025b: 48-49). 이는 종립대학 인성교육 평가에도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평가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인지적 영역에서는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 윤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력,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을 평가한다. 둘째, 정서적 영역에서는 타자에 대한 공감, 자기 성찰의 깊이, 실존적 의미 추구 등을 측정한다. 셋째, 행동적 영역에서는 실제 봉사활동

동 참여, 윤리적 행동 실천, 공동체 기여 등을 확인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평가를 위해서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양적 평가 방법으로는 지필시험, 표준화된 인성 검사, 행동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인성의 내면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기 종단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입학 시점, 인성교육 이수 직후, 졸업 시점, 졸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점 등에서 반복 측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지속 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연구자의 시점이며 교육과정상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나, 인성교육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양적 연구만으로는 인성교육의 심층적 효과를 포착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내면적 변화, 가치관의 전환, 삶의 방향성 재구성 등은 양적 수치로 환원되지 않는 질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층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 관찰, 생애사 연구 등 질적 연구를 통한 보완이 적절하다. 박세훈 외(2016)의 원불교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질적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Park et al., 2016: 41-42). 비록 통제집단 부재와 소수 표본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구체적 변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교육 효과와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일상적 행동 변화, 또래 관계에서의 태도 형성, 자기 성찰의 깊이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내면의 성장 과정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립대학도 이러한 질적 접근을 통해 인성교육의 미묘한 효과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종교 신자와 비신자 학생 간의 경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각 집단의 수용 방식과 저항 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특정의 종교적 가치가 보편적 덕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매개 요인을 확인하게 한다. 또한, 학기 초와 학기 말, 졸업 후의 추적 조사를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태도 변화와 지속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인성 함양의 조건을 규명할 수 있다. 예컨대 무종교 학생들이 종교적 언어에서 느끼는 거부감을 보편적 언어로 재구성하거나, 학생들이 습득한 가치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을 연계하는 교육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결국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기반한 효과성 검증 체계 구축은 다원화된 학생 구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의 질 개선에 있으므로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교육과정, 교수법, 프로그램 설계에 환류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인성교육 전담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종립대학(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교육센터,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인성교육센터, 대전대학교 인성교육원 등)만이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평가와 환류 기능은 취약한 실정이다. 전담 조직은 인성교육의 기획, 운영, 평가, 개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특히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연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과정의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매 학기 또는 매년 인성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수자 간 협의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일정 주기마다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

편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과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개선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종립대학 인성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외부 인성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정기적으로 구하는 것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V. AI 시대,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응답

본 연구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10년의 시점에서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종교적 가치와 보편적 교육 목표 간의 조화 가능성을 탐색하여 지속가능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립대학은 종교적 전통에 기반한 명확한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보유하고 있어, 인성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일반대학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기독교의 사랑과 섬김, 불교의 자비와 깨달음, 유교의 인의예지, 원불교의 정신개벽,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등 각 종교 전통이 제시하는 이념과 가치는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 가치·덕목과 본질적으로 맥락을 같이한다.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제공하고, 전인적 인간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실천적 내면화를 위한 구체적 교육방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종립대학의 건학이념은 인성교육의 교육철학적 기초를 공고히 한다. 특히 종교적 인성 개념이 지닌 보편적 가치와 특수성이 적절히 조화될 때, 종립대학은 다원화 사회에서 학생들의 내면적 성찰을 촉진하고 실천적 덕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종립대학 인성교육은 종교의 자유와 건학이념 간 구조적 긴장, 교과-비교과 간 불균형, 전임교원의 교양교육 참여율 저조, 효과성 검증의 방법론적 취약성 등 현실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졸업 이수 요건으로 부과된 인성교육 교과목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종립대학이 종교적 정체성과 교육적 개방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근본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또한 교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에 비해 비교과 프로그램 병행하는 대학이 현저히 적어 이론 학습과 실천 경험 간의 연계가 취약한 실정이다. 전임교원의 교양교육 참여율 저하는 인성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통제집단 미설정과 장기 추적 연구의 미비는 인성교육의 실제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수의 종립대학이 직면한 인성교육의 과제가 단순한 프로그램 개선 차원을 넘어 구조적·개념적 재설계가 절실함을 시사한다.

셋째,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특수성과 보편적 가치의 조화, 교과-비교과 통합 모델의 강화, 효과성 검증 체계의 구축이 체계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종교적 가르침 속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성교육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교과에서 학습한 가치와 원리를 비교과 활동에서 실천하고 성찰하는 순환적 구조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식과 실천의 융합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제 중심 통합 모델, 프로젝트 기반 학습 모델, 역량 중심 통합 모델 등 다양한 교과-비교과 연계 방식을 개발하고, 교육 현장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차원을 포괄하는 다면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장기 종단 연구를 통해 인성교육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환류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 방향들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AI 시대의 새로운 국면에 조응하는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AI 시대는 종립대학 인성교육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이 인간의 인지적·물리적 능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종교 전통이 탐구해 온 인간 고유의 가치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밝히는 본질적 역할을 담당한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형상’, 불교의 ‘불성’, 유교의 ‘천명지성’, 원불교의 ‘일원상’, 그리고 대순진리회의 ‘인존’은 모두 AI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과 고유성을 천명한다. 이에 종립대학 인성교육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와 같은 실존적 질문을 교육내용의 중심에 위치시켜야 한다.

AI의 일상화는 디지털 불평등, 알고리즘 편향, 온라인 폭력 등과 같이 기존 윤리 체계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Na, 2025: 956). 더욱이 AI로 인한 자동화는 노동 환경의 재편, 계층 간 양극화, 사회적 유대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가중한다. 기술 개선으로 해소할 수 없는 이 같은 문제들은 인간 본연의 가치와 연대 의식에 뿌리를 둔 윤리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유교의 충서(忠恕), 원불교의 사은(四恩), 대순진리회의 상생 등은 타자에 대한 배려와 공존의 정신으로 수렴된다. 이는 AI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윤리적 담론을 구축하는 사상적 준거로 충분하다. 아울러 현시대는 기후 변화, 환경 파괴, 종다양성 상실이라는 세계사적 문명 위기에 놓여 있다. 종교 전통이 계승해 온 생명에 대한 경외, 자연과의 조화,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에 대한 통찰은 기술 진보와 생태환경 보존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철학적·윤리적 근간을 마련해줄 수 있다.

종립대학 인성교육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다원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어떻게 의미 있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는 단순히 교육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종립대학 자체의 존재 의미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다. 종립대학이 건학이념을 고수하되 시대와 소통하고 특수성을 간직하되 보편성을 지향하며 전통을 계승하되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인성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종교적 전통이 제공하는 깊이 있는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학생들이 발견하도록 도울 때, 종립대학의 인성교육은 가치의 부재와 의미의 상실로 고통받는 현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S. (2020). A New Direction of General Education about Religion in the 21st Century: Focusing on the Case of Pai Chai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4(1), 219-237.
- Baek, H. G., & Park, H. S. (2024). A Study on the Design Model of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for Character Competency Development. *Journal of Character Education and Research*, 9(2), 45-73.
- Bak, Y. M., Kang, K. N., Kim, M. R., & Lee, S. E. (2022).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University Personality Education. *Journal of Character Education & Research*, 7(1), 1-28.
- Cho, K. R. (2019). Improving Buddhism-based Character Education Curriculums of the Buddhist Missionary University. *Bul Gyo Hak Bo*, 88, 317-339.
- Han, G. C. (2025). A Critical Discussion of “Humanity Education”: On the Policies and Talks of the Recent Ten Year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7(2), 451-476.
- Huh, D. H. (2016). Evangelical Personality Development for Faith-Learning Integration: A New Paradigm for Christian Personality Development. *Theological Thought*, 173, 235-266.
- Jung, J. W. (2012). A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to Embody the Founding Ideals of Sun Moon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8, 75-94.
- Kang, K. L. (2024).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in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Study on Liberal Education Practice*, 8(1), 5-24.
- Kim, C. J., & Ko, B. C. (2016). Religion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for Christian Secondary Schools.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27, 177-209.
- Kwon, S. H. (2025a).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Based on Eastern and Western Thought.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37(2), 69-93.
- Kwon, S. H. (2025b). Conceptual Issues and Tasks of Character Education: Focusing on a Comparison with Related Concepts. *Philosophy of Education*, 43(2), 21-54.
- Lee, H. M. (2016). Religious Education for Moral Character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2, 151-169.
- Lee, S. M. (2023). Researching a New Paradigm for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Human Studies*, 50, 277-298.

- Moon, S. Y. (2015). A Study on Activating the Character Education through the Religion Education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s of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9, 51-74.
- Na, K. S. (2025). Generational Conflict and the Therapeutic Approach of Character Education.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7(2), 955-973.
- Na, K. S., & Youn, J. K. (2015). Method to invigorate personality education of Daesoonjinrihoi.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9, 75-101.
- Na, K. S., & Youn, J. K. (2022). Analysis of Religious Education Status as General Education and Research on Improvement.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1, 81-99.
- Park, S. H., Jang, J. Y., & Ko, S. Y. (2016).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based on Won-Buddhis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0, 27-46.
- Ru, K. S., & Lee, J. H. (2024). In the AI Era,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Character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9, 139-163.
- Seong, H. Y. (2015). Religion and Character Education for Youth: Focusing on “Character Education for Youth Program”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25, 277-302.
- Son, K. W. (2016). Trends and Challenges of the Character Education Research.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39, 97-133.
- Son, S. N. (2024). Direction and Challenges of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Field-based Lesson Studies*, 5(2), 23-46.
- Yoo, S. H. (2018).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through the Religious Subject Education. *Theological Forum*, 93, 59-87.
- Youn, J. K. (2007). Theory of Religious Education in DaeSoon Thought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4, 245-263.
- 고병철 (2012).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Translated in English) Ko, B. C. (2012). *Theory of Religious Subject Education in Korean Secondary Schools*. Seoul: Bagmunsa.
- 권순형, 이희현, 양희준, 도재우, 이정우 (202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Translated in English) Kwon, S. H., Lee, H. H., Yang, H. J., Do, J. W., & Lee, J. W. (2023). *KEDI POLL 2023*.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